

대학도서관 사서가 인식한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영향 요인*

Perceived Knowledge of Evidence-Based Practice among University Librarians

김 갑 선 (Kapseon Kim)**

< 목 차 >

I. 서론	2. 근거기반실무 관련 활동
1. 연구 목적	3.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정도 및 항목 별 평균 점수
2. 근거기반실무 연구의 추세	4. 응답자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차이
II. 연구 방법	5. 근거기반실무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연구 설계	IV. 논의
2. 연구 대상	1. 지각된 근거기반실무의 지식
3. 연구 도구	2.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촉진 방안
4. 자료 분석	V. 결론
5. 연구의 제한점	
III. 결과	
1. 응답자 특성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사서가 인식한 근거기반실무의 지식 정도와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도서관의 경영과 사서직 발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 응답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연령, 교육정도, 고용유형, 직위, 학술지읽기, 학술대회 참여이었다. 이들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은 교육정도, 학술지읽기로 나타났다. 또한, 근거기반실무 지식 중 근거의 비판적 평가와 실무적용 및 연구문헌 이해와 연구수행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도서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은 대학도서관과 사서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혁신의 촉진요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기반실무의 지식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서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연구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단위, 도서관계, 학계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키워드: 근거기반실무, 근거기반실무 지식, 대학도서관 사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s and factors influencing perceived knowledge of evidence-based practice(K-EBP) among university libraria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Variable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in K-EBP were age, education level, employed type, position, frequency of reading journal articles, and attendance of confere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redicting factors influencing K-EBP were education level and frequency of reading journal articles. Also, It turned out to be weak in critically appraising and applying research evidence in practice, and in understanding research literature and conducting research among items of K-EBP. For developing university librarians' K-EBP, they need to improve overall research literacy. Library organization and library sectors need to support research activities of librarians. Finally, many different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to develop librarians' research skill and to utilize for enlargement of evidence-based practice.

Keywords: Evidence-based practice, University librarians

* 본 논문은 중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 임(2017-065).

본 논문은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2018) 발표 논문을 보완한 것 임.

**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kapskim@jwu.ac.kr)

•논문접수: 2019년 2월 16일 •최초심사: 2019년 2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3월 15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43-60,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3.43]

I. 서론

1. 연구 목적

대학도서관 사서는 정보서비스 운영의 주체로서 대학도서관이 직면하는 다양한 변화를 인식하고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이어야 한다. 대학도서관과 사서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은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적 업무역량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특히, 사서의 전문적 업무역량으로서 ‘근거기반실무(Evidence-Based Practice, EBP)’를 언급할 수 있다. 근거기반실무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업무개선을 위하여 과학적이며 최신의 연구결과를 근거(evidence)로 식별하고 업무에 적용하며 활용할 수 있는 실무자의 지적 역량”(Upton & Upton 2006)으로 정의한다.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실무자의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사서가 겸비한 내부적 혁신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 혁신행동에서 주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서의 업무전문성의 역량 검토를 위한 시도로써 대학도서관 사서가 지각하는 근거기반실무에 관한 인식 정도와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Upton & Upton(2006)의 근거기반실무의 측정도구 중 ‘지식’ 부분을 적용하여 대학도서관 사서가 지각하는 근거기반실무의 ‘지식(knowledge)’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학도서관의 경영과 사서직 발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근거기반실무의 다양한 ‘근거’ 중 ‘연구근거’에 강조점을 두고 대학도서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의 ‘지식’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연구근거’에 강조점을 두는 이유는 근거기반실무를 구성하는 다양한 근거 중 연구근거가 도서관과 사서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강건한 토대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 관련 특성을 검토한다.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가 지각하는 근거기반실무의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도서관 사서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지식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도서관 사서가 지각하는 근거기반실무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근거기반실무 연구의 추세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변화는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행동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을 주도하고 고품질의 업무성과를 도출하기를 요구한다. 근거기반실무(혹은 근거중심실무)개념은 수십년 대 근거기반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에서 시작하였다. 현재는 이론을 적용하는 실무현장이 있는 모든 학문분야(간호학, 교육학,

사회과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문헌정보학 등)로 그 응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본 연구자는 근거기반실무(EBP)개념이 실무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실무자들은 근거기반실무 개념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실무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지식이나 최신의 연구결과를 찾고 참조하여 왔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근거기반실무 개념의 등장은 실무현장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업무활동이 아니다. 단지 실무에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론적 근거 하에 수행하고자 하는 합리적 실무행위의 재강조·재인식의 개념이다. 실무자의 이러한 일상적 실무행위를 학술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학술적 현상으로 구명하고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거기반실무에 관한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추세 유형은 근거기반실무의 정의 모색, 근거의 실체 구명, 근거기반실무 적용의 장애요인 식별, 및 근거기반실무의 적용 경험 논의로 대별 할 수 있다.

첫째, 문헌정보학분야에서 근거기반실무에 관한 정의와 논의(Eldredge 2000; Booth 2002; 표순희 2009; Booth 2007; Todd, 2009; Hallam 2018)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헌정보학분야에서 초창기 시작개념은 근거기반의학(EBM)의 개념을 수용하여 근거기반의 일반적인 정의인 실무자가 실무개선을 목적으로 최상의 과학적 근거를 식별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실제업무의 품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다. 현재의 확장된 정의(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EBLIP)는 근거기반실무를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화된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의 구성요소나 단계를 식별하고자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Miller 등(2017, 124)은 EBLIP를 “전문직 실무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근거자료를 식별하고(identify), 수집하고(acquiring), 평가하고(appraising), 적용하기(apply)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과정”으로 보고 있다. Koufogiannakis & Brettell(2016, 15)는 EBLIP를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화된 과정이며, 특히, “명료화하기(articulate), 수집하기(assemble), 사정하기(assess), 동의하기(agree), 조정하기(adapt)의 순환적 과정”으로 식별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의 근거중심실무(EBLIP) 정의가 의학, 간호학분야와 달리 의사결정과정으로 확장되는 이유는 학문적 실무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의학, 간호학의 지식과 실무는 자연과학분야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실무개선을 위해 ‘과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적용하는 것을 중시한다. 반면에 문헌정보학 연구와 도서관실무는 사회과학에 가깝기 때문에 공유하는 과학적 객관적 지식 외에도 지역적 맥락 등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회적 맥락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의 업무개선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의사결정과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존 정의의 확대와 더불어 ‘연구근거’로 시작된 ‘근거’유형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근거기반실무의 ‘근거’의 실체 구명(究明) 논의(Eldredge 2000;

Koufogiannakis 2012; Gillespie et al. 2014; Gillespie et al 2017 ; Brettle 2017)는 초창기에는 협의의 개념으로 과학적 근거인 ‘연구근거’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러나 근거중심 실무 정의가 의사결정과정으로 의미가 확대되면서 ‘근거’의 유형도 다양화 되고 있다. 최근 연구는 근거를 공식적 출판 여부에 따라, “하드근거(hard evidence)”와 “소프트근거(soft evidence)”(Koufogiannakis 2012)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근거의 내용적 속성에 따라 “연구근거(research evidence), 전문지식(professional knowledge), 현장근거(local evidence)”(Koufogiannakis 2011, 53)로 구분하고 있으며, “문헌정보 실무자들은 의사결정시 연구근거 뿐 아니라, 전문지식, 현장근거를 활용한다”(Koufogiannakis 2011, 53)고 밝혀졌다.

셋째, 근거기반실무를 현장에 적용할 때 장애요인 식별(김갑선 2004; 표순희 2010; Booth 2011; Jamali 2018)하였다. 김갑선(2004)은 근거기반실무의 선행개념으로서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구활용 장애요인을 식별하였다. 표순희(2010)는 국내 실무자의 근거출판 활성화를 통한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Booth(2011)는 관련 문헌분석을 통하여 환경, 근거, 도서관, 사서직, 패러다임 영역으로 근거기반실무 적용의 장애요소를 구분하였다.

넷째, 가장 최근에 근거기반실무 연구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주제는 실무자들이 근거기반실무를 현장에 적용할 때 경험하는 적용 경험의 논의(Bayley, Ferrell, & McKinnell 2009; Koufogiannakis 2012; Koufogiannakis 2013; Miller et al. 2017; Muellenbach 2017; Luo 2018) 이다. 특히, Miller 등(2017, 126-129)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EBP 경험을 “강화하기(empowering), 직감하기(intuiting), 인정하기(affirming), 연결하기(connecting), 주목하기(noticing), 영향주기(impacting)”로 범주화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의 ‘지식’의 인식 정도와 영향요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조사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를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적용하는 Upton & Upton(2006)의 측정도구(Clinical Effectiveness and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 for Nurses, EBPQ)를 적용하였다. Upton & Upton(2006)의 측정도구는 근거기반실무의 수행(practice)(6문항)과 태도(attitude)(4문항)의 빈도 및 지식(knowledge)(14문항)의 정도를 자가보고(self-reported)식으로 측정하는 세부분(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기반실무의 지식 정도를 측정하고자 ‘지식’에 관한 14문항(Likert 7점 척도)만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측정도구 문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practice”는 “사서실무”로, “individual cases”는 “도서관 개별사례”, “useful (clinically applicable)”를 “실무 적용 가능성”으로 표기하였다.

본 연구가 Upton & Upton(2006)의 측정도구(EBPQ)를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통계적 신뢰성(측정도구 전체의 크론바하 알파계수=0.87, 지식 하부척도의 크론바하 알파계수=0.91)(Upton & Upton 2006, 456)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간호사 등 의료보건 전문직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직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Upton 2014). 셋째, 비록 간호사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측정도구 문항의 적용맥락이나 용어가 보편적이라 실무현장의 제약 없이 빠르고 쉽게 적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근거기반실무의 ‘근거’가 ‘연구근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측정도구의 24개 문항 중 수행과 태도를 제외하고 근거기반실무 지식만을 조사한 이유는 근거기반실무를 적용하는데 있어 실무자의 지식 정도가 실행력의 근간이 되는 요인이며, 이러한 근거기반실무 지식이 도서관 조직의 혁신적 행위를 예측하는 영향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 및 정보기술 활용능력 및 문헌을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Upton & Upton 2006, 457)을 의미한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http://www.rinfo.kr>)에서 정규직 사서 6명 이상이 근무하며, 도서관홈페이지에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는 101개 대학도서관에 재직하는 사서들이다. 그 중 본 연구자가 직무, 보직들을 고려한 비확률적 표집에 의해 예비응답자를 선발하였으며(n=636), 전체 응답률은 16.03%(101명)이었다. 도서관의 사서 규모를 제한한 이유는 사서가 일정 정도의 직원 규모를 가진 도서관의 근무경험이 있어야 조직 내외의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업무경험을 풍부하게 경험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근거기반실무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Upton & Upton(2006)의 측정도구(EBPQ)를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Brown et al. 2009; 임경춘 외 2011)를 참조하여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실무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정도, 고용형태, 직위, 근무기간, 담당업무, 학술지 논문 읽기, 학술대회 참가 여부를 조사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일반적 특징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가 인식하는 근거기반실무 지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셋째, 대학도서관사서의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차이를 T-test 와 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학도서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층적 방법을 이용한 선형다중회귀(Linear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메일을 공개하는 정규직 사서 6명 이상의 대학도서관(n=101)의 사서들(n=636)이며 전체 응답률(16.03%)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한국의 대학도서관 사서라는 표적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질문에 응답하였을 수도 있다.

Ⅲ. 결과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 응답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평균연령은 45.87 ±10세이며, 41세 이상이 70.3%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이 52.55%, 남성이 47.5%이었다. 교육정도는 석사학위 이상이 53.5%, 학사가 46.5%이다. 근무경력은 평균 19.64 ±10.69년 이다. 20~37년(70.3%), 6~19년(20.8%) 이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9.1%이다. 직위는 파트장/팀장(부장)이 31.7%, 평사서가 31.7%, 책임/선임/차장이 21.8%, 대리/주임이 14.9%이었다. 담당업무는 지원업무가 55.0%, 정보서비스업무가 45.05%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1)

특성	구분	응답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연령	21~29세	9	8.9	45.87 ±10.253
	30~40세	21	20.8	
	≥41세	71	70.3	
성별	남	48	47.5	
	여	53	52.5	
교육 정도	학사	47	46.5	
	석사학위 이상	54	53.5	
근무 경력	1~5년	9	8.9	19.64 ±10.699
	6~19년	21	20.8	
	20~37년	71	70.3	
고용 형태	정규직	90	89.1	
	계약직	11	10.9	
직위	평사서	32	31.7	
	대리/주임대리	15	14.9	
	책임/선임/차장	22	21.8	
	파트장/팀장(부장)	32	31.7	
업무	정보서비스	45	45.0	
	지원 업무	55	55.0	
	무응답	1		

2. 근거기반실무 관련 활동

근거기반실무의 용어인식 정도는 응답자의 43.6%가 ‘들어 봤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혀 모른다’(37.6%), ‘약간 알고 있다’ (12.9%), ‘잘 알고 있다’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술지읽기 여부는 ‘가끔 읽는다’ (64.0%), ‘전혀 읽지 않는다’ (29.04%)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65.0%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근거는 절반 정도가 ‘새로운 업무환경에 놓이게 될 때’ (49.5%)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실무에서 유능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할 때’(31.7%), ‘업무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할 때’ (10.9%), ‘사서업무에 오류가 발생 했을 때’(7.9%) 순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응답자들은 도서관현장에서 연구근거가 필요할 때 해결방법은 ‘자료 탐색’(78.2%)이 우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동료나 선배 사서에게 문의’(17.8%),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4.0%)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2>.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1호)

〈표 2〉 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관련 활동 (n=101)

변인	분류	응답수	백분율(%)
근거기반실무 용어 인식 정도	잘 알고 있다	6	5.9
	약간 알고 있다	13	12.9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	44	43.6
	전혀 모른다	38	37.6
학술지 읽기	자주 읽는다	7	7.0
	가끔 읽는다	64	64.0
	전혀 읽지 않는다	29	29.0
학술대회 참석 여부	참석	35	35.0
	불참	65	65.0
연구근거의 필요성	신규사서나 후배 사서를 교육 할 때	0	0.0
	실무에서 유능한 전문가가 되고자 할 때	32	31.7
	업무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할 때	11	10.9
	사서 실무에서 오류가 발생시	8	7.9
	새로운 도서관 업무 환경에 놓이게 될 때	50	49.5
도서관 실무 현장에서 연구 근거 자료의 해결 방법	자료 탐색 (예: 논문, 학술지, 전공서적, 인터넷 등)	79	78.2
	동료나 선배 사서에게 문의	18	17.8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 (예: 교수, 전문가 등)	4	4.0

3.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정도 및 항목 별 평균 점수

응답자의 근거기반실무 지식(Upton & Upton 2006, 457)은 98점 만점에 평균 점수는 74.70 ±11.56 이다<표 3>.

〈표 3〉 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지식 정도 (n=101)

변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실제 측정치	가능 측정치
근거기반실무 지식	14	74.70 ±11.56	31 - 98	14 - 98

응답자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항목별 평균 점수는 7점 만점에 5.34 ±1.03 이다. 근거기반실무 지식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동료와 아이디어와 정보의 공유능력’ (5.8 ±0.91) 이다. 그 다음으로는 ‘담당업무 검토 능력’ (5.71 ±0.94), ‘사서실무 모니터링 및 검토 능력’ (5.5 ±1.06), ‘실무 지식의 유형과 출처 파악 능력’ (5.46 ±1.02), ‘이론과 사서실무의 격차 파악’ (5.46 ±0.93) 순으로 나타났다<표 4>.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업무 표준에 반대되는 근거 비판적 분석’

(4.76 ±1.08)이다, 그 다음으로는 ‘근거자료의 타당성 결정 능력’ (4.92 ±1.09), ‘사서실무의 연구문제 전환 능력’ (5.11 ±1.10), ‘연구결과 및 통계분석 결과 이해, 정보기술활용 능력’(5.18 ±1.16), ‘사서실무의 근거자료 검색 능력’ (5.31 ±1.06) 순이다.

<표 4>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항목별 평균점수 (n=101)

항목	평균 ±표준편차	순위
1. 사서실무 연구 수행 능력	5.33 ±1.17	8
2. 연구결과 및 통계분석 결과 이해, 정보기술활용 능력	5.18 ±1.16	11
3. 사서실무 모니터링 및 검토 능력	5.50 ±1.06	3
4. 사서실무의 연구문제 전환 능력	5.11 ±1.10	12
5. 실무 지식의 유형과 출처 파악 능력	5.46 ±1.02	5
6. 이론과 사서실무의 격차 파악	5.46 ±0.93	5
7. 사서실무의 근거자료 검색 능력	5.31 ±1.06	9
8. 업무 표준에 반대되는 근거 비판적 분석	4.76 ±1.08	14
9. 근거자료의 타당성 결정 능력	4.92 ±1.09	13
10. 근거자료의 실무 적용 가능성 결정 능력	5.31 ±1.03	9
11. 실무지식을 도서관 개별 실무 사례 적용 능력	5.41 ±0.98	7
12. 동료와 아이디어와 정보의 공유 능력	5.80 ±0.91	1
13. 동료에게 새로운 실무아이디어 파급 능력	5.50 ±1.02	3
14. 담당업무 검토 능력	5.71 ±0.94	2
문항 당 평균	5.34 ±1.03	

* 출처: Upton & Upton 2006, 457.

4. 응답자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차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근거기반실무 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연령 (F=5.037, p<0.008), 교육 정도(F=-3.54, p<.001), 고용 유형(F=3.165, p<.002), 직 위(F=2.916, p<.038), 학술지 읽기(F=10.325, p<.001), 학술대회 참여(F=3.50, p<.001) 여부 이었다<표 5>.

<표 5> 대상자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지식 차이 (n=101)

특성	범주	응답수	근거기반실무 지식		
			평균	표준편차	t or F(p)
성별	남	48	76.88	9.07	1.817(.072)
	여	53	72.74	13.21	
연령	20-29	9	68.22	16.74	5.037 (.008) a<c
	30-40	21	69.81	15.66	
	41 이상	71	76.97	8.43	
교육 정도	학사	47	70.57	12.41	-3.54 (.001) a<b
	석사 이상	54	78.30	9.51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1호)

근무 경력	1-5년	9	71.33	15.04	1.529 (.222)
	6-19년	21	73.07	14.23	
	20-37년	71	76.36	8.72	
고용 유형	정규직	90	75.92	10.45	3.165 (.002)
	계약직	11	64.73	15.55	
직위	평사서	32	70.34	15.15	2.916 (.038) a<c
	대리/주임	15	74.47	8.50	
	책임/선임	22	79.14	7.87	
	파트장/팀장(부장)	32	76.13	9.56	
업무	정보서비스	45	76.07	12.00	1.018 (.311)
	지원업무	55	73.69	11.27	
학술지 읽기	자주 읽는다	7	87.43	5.26	10.325 (<.001) b,c<a
	가끔 읽는다	64	76.03	8.57	
	전혀 읽지 않는다	29	68.55	14.90	
학술대회 참여	예	35	79.91	8.38	3.50 (.001) b<a
	아니오	65	71.83	12.17	

a, b, c, d : Scheffé test

5. 근거기반실무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응답자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개인적 배경요인과 실무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4.246$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는 0.230으로 나타났다.

<표 6>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영향요인 (n=101)

영향요인	B	S.E	β	t	p
성별	-3.50	2.34	-0.15	-1.50	0.14
연령	1.08	3.29	0.06	0.33	0.74
교육정도	4.99	2.26	0.22	2.21	0.03
근무경력	0.03	0.18	0.02	0.15	0.88
고용형태	-3.53	4.67	-0.10	-0.76	0.45
직위	-0.72	1.21	-0.08	-0.60	0.55
업무	-1.51	2.15	-0.07	-0.70	0.48
학술지 읽기	-5.06	2.31	-0.24	-2.19	0.03
학술대회 참석	-4.41	2.74	-0.18	-1.61	0.11

$F= 4.246$ ($p<.001$), $Adj R^2 =0.230$

근거기반실무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교육정도($\beta=.22, p=.03$), 학술지 읽기 여부($\beta=-.24, p=.03$)로 나타났다<표 6>.

IV. 논의

1. 지각된 근거기반실무의 지식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징은 신참사서보다는 중견사서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은 대체로 조직에서 행정력과 의사결정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사서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응답 사서들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은 98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74.70 ± 11.56 이며(표 3), 문항 당 평균은 7점 만점에 5.34 ± 1.0385 이다<표 4>. 이는 동일한 도구를 적용한 간호사 대상 연구의 문항평균은 4.67 ± 0.79 (Koehn & Lehman 2008), 4.61 ± 0.75 (임경춘 외 2011), 4.56 (Brown et al. 2009), 4.22 ± 0.77 (김경윤, 이은주 2016), 4.10 ± 0.68 (김정숙 외 2013), 4.10 ± 0.93 (손연정 외 2012)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근무 경력이 많은 경력사서라는 점과 관련이 있으며,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사서직과 환자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직의 업무 차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응답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 용어의 인식은 실제적으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응답자들은 근거기반실무 용어를 ‘잘 모르거나’(43.6%), ‘전혀 모르는’(37.6%) ‘모른다’가 매우 우세하게(81.1%) 나타났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에서 근거기반실무 논의가 드물었기 때문에 용어 자체에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기반실무 관련 활동으로서 응답자들은 ‘학술대회에 참석’하기(35%) 보다는 ‘학술지읽기’를 선호(64.0%)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표 2>. 그 이유는 실무사서들이 석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학술대회를 연구자들의 학술적 모임이라고 간주하고 학술대회에 무관심하거나 실무자로서 학술대회와 심리적 거리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업무 중에 관심있는 주제의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조직 분위기상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근거기반실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헌정보학 최신 지식을 자주 접하기 보다는 ‘새로운 도서관 업무 환경에 놓이게 될 때’(49.5%), ‘유능한 실무전문가가 되고자 할 때’(31.7%) ‘자료 탐색’(78.2%)을 통해서 연구근거를 확보하는 경향이었다(표 2). 이는 응답자 사서들이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담당업무의 향후 발전 방향을 알고자 할 때 등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실무맥락과 개인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동료들의 경험적 지식

보다는 문자화된 객관적 정보인 연구근거를 추구하며, 일차적으로 협력적 방법보다는 독자적인 해결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인식정도<표 4>를 상세히 검토하기 위하여 14개 문항을 재편성하여 근거기반실무 지식을 ‘연구문헌 이해 및 연구수행’, ‘실무문제 인식’, ‘근거의 평가 및 실무 적용’, ‘의사소통’의 4가지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표 7>. 평균 순위를 살펴보면<표 7>, ‘의사소통’ 영역이 제일 높았으며(평균 순위 2), 그 다음으로는 ‘실무문제 인식’ 영역이 높았다(평균 순위 4.75). 반면에 ‘근거의 평가 및 실무적용 영역’이 제일 낮았다(평균 순위 11). 그 다음으로는 ‘연구문헌 이해 및 연구수행 영역’(평균 순위 8.0)이 낮았다. 즉, ‘의사소통’ 영역과 ‘실무문제 인식’ 영역이 높다는 것은 근거기반실무에 관한 인식단계로 변화와 혁신에 관한 의지와 인식이 높고, 실무수행과 실무평가 능력도 뛰어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응답자들이 ‘근거기반실무’라는 용어 자체는 덜 친숙하지만(표 2), 이미 근거기반실무의 시작점인 실무에서의 문제 인식력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실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로 연계하는 과정은 취약한 일면이 있다. 즉, ‘근거의 평가(비판적 분석, 타당성 결정 능력) 및 실무적용(연구문제 전환 능력)’ 영역과 ‘연구문헌 이해 및 연구수행’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7>. 이러한 취약 경향은 사서직 뿐 아니

<표 7>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항목별 재구성 (n=101)

범주	항목	평균과 표준편차	순위
연구문헌 이해 및 연구수행	1. 사서실무 연구 수행 능력	5.33 ±1.17	8
	2. 연구결과 및 통계분석 결과 이해, 정보기술활용능력	5.18 ±1.16	11
	5. 실무 지식의 유형과 출처 파악 능력	5.46 ±1.02	5
			8.0
실무문제 인식	3. 사서실무 모니터링 및 검토능력	5.50 ±1.06	3
	6. 이론과 사서실무의 격차 파악	5.46 ±0.93	5
	7. 사서실무의 근거자료 검색 능력	5.31 ±1.06	9
	14. 담당업무 검토 능력	5.71 ±0.94	2
			4.7
근거의 평가 및 실무적용	4. 사서실무의 연구문제 전환 능력	5.11 ±1.10	12
	8. 업무 표준에 반대되는 근거 비판적 분석	4.76 ±1.08	14
	9. 근거자료의 타당성 결정 능력	4.92 ±1.09	13
	10. 근거자료의 실무 적용 가능성 결정 능력	5.31 ±1.03	9
	11. 실무지식을 도서관 개별 실무 사례 적용 능력	5.41 ±0.98	7
			11.0
의사소통	12. 동료와 아이디어와 정보의 공유 능력	5.80 ±0.91	1
	13 동료에게 새로운 실무아이디어 파급능력	5.50 ±1.02	3
			2.0
문항 당 평균		5.34 ±1.03	

라 간호사직 연구(임경춘 외 2011; 손연정 외 2012; 김정숙 외 2013)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 유사한 현상이다. 이는 실무자들이 공유하는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취약 부분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무자들이 연구문헌에 관한 비판적 분석 및 평가, 직면한 실무문제를 연구문제로 연계하는 전반적 연구기술(skill)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대학도서관 사서의 핵심역량인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기반실무의 지식에 차이를 보인 대학도서관 사서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교육정도, 고용유형, 직위, 학술지읽기, 학술대회참여 여부 이었다(표 5).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고용유형이 정규직이며, 직위가 높을수록,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자주 읽을수록, 학술대회에 참여할수록 근거기반실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기반실무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정도와 학술지읽기로 나타났다<표 6>. 이는 사서가 개인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대학원과정의 학업 이수), 도서관 현장경험을 통해 확보한 실무지식에 과학적 이론적 문헌정보학지식이 통합될 때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최상으로 강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서관실무에서 근거기반실무의 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계속적 교육과 연구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 도서관 조직단위, 도서관계 및 학계 차원의 정책 및 제도지원이 필요하다.

2.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촉진 방안

본 연구에 응답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정도와 학술지읽기로 나타났다. 또한, 근거기반실무 지식 중 근거의 비판적 평가 및 실무적용, 연구문헌 이해와 연구수행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무자들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개인차원, 조직차원, 문헌정보학교육 및 학계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차원에서 근거기반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서는 무엇보다 업무에 관한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또한, 사서는 실무자이자 동시에 현장의 연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문직 인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서는 다양한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현장의 문제해결 경험을 동료들과 공개된 지식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서는 자신의 “연구활용능력(research literacy)”(김갑선 2004, 88)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활용능력이란 실무의 이해증진, 문제해결, 의사결정을 위해 연구문헌을 읽고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 뿐 아니라, 자신의 실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연구수행능력을 포함한다.

‘연구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학업수행이 필수적이다. 대학원 학위과정에

서 연구문헌의 비판적 평가방법 및 다양한 연구방법을 심화학습하고, 관심주제를 학위논문으로 작성해 보는 경험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의 지식역량을 강화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역량강화는 전문성 개발기회를 능동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실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목과 수행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조직은 구성원인 사서들이 실무와 연구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서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단위도서관은 실무자들이 업무개선 열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조직을 지원하고, 실무자의 연구참여활동을 정책적으로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문헌정보학계는 학습자들의 근거기반실무에 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과목 전반에 근거기반실무 개념을 전제로 교과목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자들은 문헌정보학 실무자는 실무자이자 동시에 연구자라는 전문가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학술활동참여는 전문직의 당연한 의무활동이라는 인식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실무에서 근거기반실무에 필요한 근거를 어떻게 식별하고,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방법론 교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제공해야 한다. 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는 연구문헌의 비판적 평가방법, 실무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론, 연구의 의의와 논문구조 및 논문작성법을 제공해야 한다. 예비사서들이 학부과정에서부터 연구 및 학술활동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학과 학술제 개최, 학술지 제작, 졸업논문 작성, 실무의 문제해결과 연계된 학습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계는 실무자들이 학술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정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제공하거나, 실무자들을 학술대회 토론자로 초대하는 등의 연구자와 실무자의 심리적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V. 결론

대학도서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은 도서관과 사서직의 지속적 발전의 촉진요인이자 혁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 관련 특성을 검토하고, 대학도서관 사서가 지각하는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영향요인을 식별하였다. 근거기반실무 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연령, 교육정도, 고용유형, 직위, 학술지읽기, 학술대회 참여 이었다. 근거기반실무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정도, 학술지읽기로 나타났다. 또한, 근거기반실무의 지식 중 근거의 실무적용 및 연구문헌 이해와 연구수행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거기반실무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서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연구 관

련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단위, 도서관계, 학계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에 관한 인식 정도를 검토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도서관현장의 근거기반실무에 관한 활발한 연구 및 논의 기반을 제공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지각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도서관 사서들의 근거기반실무에 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근거기반실무의 개념과 인식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실무 및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공 할 수 있다. 첫째, 대학도서관 사서가 인식한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영향요인의 이해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계속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 이다. 둘째, 교육과 실무현장에서 근거기반실무 실행을 위해 실무자들의 연구활용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거기반실무에 관한 대학도서관 현장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단초역할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응답율이 저조하여 본 연구결과가 대학도서관 사서의 근거기반실무 행태와 인식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근거기반실무에 관한 인식과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에서는 실무자들의 근거기반실무의 적용 경험에 관한 탐구와 구체적 적용 사례의 심층적 논의가 수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갑선. 2004.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구활용 장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77-91.
- 김경윤, 이은주. 2016.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수행능력과 근거기반실무역량과의 관계.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7(2): 451-461.
- 표순희. 2009. 근거중심 문헌정보학실무의 내용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6(1): 351-370.
- 표순희. 2010. 실무자의 근거출판 활성화를 통한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국내 적용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219-239.
- 김정숙, 구미옥, 조순연. 2013.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준비도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4(6): 2945-2957.
- 임경춘 외. 2011. 상급종합 병원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수행. 『임상간호연구』, 17(3): 375-387.

- 손연정 외. 2012.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의 정보검색능력이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4(6): 635-646.
- Bayley, L., S. Ferrell, & J. McKinnell. 2009. "Practicing What We Preach: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vidence-Based Practice to Inform Decision Making for Public Services Staffing in an Academic Health Sciences Library." *New Review of Academic Librarianship*, 15: 235-252.
- Booth, A. 2011.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Librarianship*, 2011:1. doi: 10.5339/pil.2011.1
- Booth, A. 2002. "From EBM to EBL: Two Steps Forward or One Step Back?." *Medic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21(3): 51-64.
- Booth, A. 2007. "Evidence in Real Time: The Story of an International Workshop."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ies Journal*, 24(3): 227-231.
- Brettle, A. 2017, "Gathering Evidence for Routine Decision-making."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12(4), 193-198.
- Brown, C. E et al. 2009. "Nursing Practice,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ived Barriers to Evidence-Based Practice at an Academic Medical Cent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2): 371-381.
- Crumley, E., & D. Koufogiannakis. 2002. "Developing Evidence-Based Librarianship: Practical Steps for Implementation."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ies Journal*, 19(2): 61-70.
- Eldredge, J. D. 2000. "Evidence-Based Librarianship: An Overview."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8: 289-302.
- Gillespie, A. M. 2014. "Untangling the Evidence: Introducing an Empirical Model of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Information Research*, 19(3). [on line] [cited 2017. 3. 15].
<<http://www.informationr.net/ir/19-3/paper632.html#.XD3W-LAUmUk>>
- Gillespie, A. M. et al. 2017. "What do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Experience as Evidence?."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12(1): 97-108.
- Glynn, L. 2006. "Editorial: The Current State of EBL."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1(2), 1-2.

- Hallam, G. 2018. "Being Evidence Based Makes Sense! An Introduction to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EBLIP)." *Forschung und Praxis*, 2018, AR 3227. [on line] [cited 2018. 11. 7].
<https://edoc.hu-berlin.de/bitstream/handle/18452/20275/AR_3227_Hallam_Preprint_BFP_2018.pdf?sequence=1&isAllowed=y>
- Jamali, H. R. 2018. "Use of Research by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e-journal)*. 1733. [on line] [cited 2018. 11. 7].
<<https://digitalcommons.unl.edu/libphilprac/1733>>
- Koehen, M. L., & K. Lehman. 2008. "Nurses' Perceptions of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2): 209-215.
- Koufogiannakis, D. 2012. "Academic Librarians' Conception and Use of Evidence Sources in Practice."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7(4), 5-24.
- Koufogiannakis, D. 2013. "EBLIP Keynote: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Evidence."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8(4), 6-17.
- Koufogiannakis, D and Alison Brettell. 2016. *Being Evidence Based in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London: Facet.
- Luo, Lili. 2018. Experiencing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EBLIP): Academic Librarians' Perspectiv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9(4): 554-567.
- Miller, F. et al. 2017. "How Academic Librarians Experience Evidence-Based Practice: A Grounded Theory Mode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9(2): 124-130.
- Muellenbach, J. 2017. "Australian Academic Librarians' Experience of Evidence Based Practice Involves Empowering, Intuiting, Affirming, Connecting, Noticing, and Impacting."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12(4): 268-270.
- Todd, R. J. 2009. "School Librarianship and Evidence Based Practice: Progress, Perspectives and Challenges."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4(2): 78-96.
- Upton, Dominic and Penelope Upton. 2006. "Development of an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 for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4): 454-458.

Upton, Dominic, Penney Upton, and Laura Scurlock-Evans. 2014. "The Reach, Transferability, and Impact of the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 A Methodological and Narrative Literature Review."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11(1): 46-54.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Jeong Sook, Meeock Gu, and Sun-yon Jo. 2013. "Factors Influencing Evidence-Based Practice Readiness for Tertiary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945-2957.
- Kim, Kyoung Yun and Eunjoo Lee. 2016. "The Relationship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cess Competency and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in Nurses Working in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2), 451-461.
- Kim, kapseon.2004. "Barriers to University Librarians' Research Uti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1): 77-91.
- Lim, Kyung Choon et al. 2011. "Registered Nurses'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about Evidence-Based Practice at General Hospita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7(3): 375-387.
- Pyo, Soon-Hee. 2009. "A Study on the Content and Methodology of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1): 351-370.
- Pyo, Soon-Hee. 2010. "The Study on the Applying Methods for EBLIP in Korean Librarian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4(3): 219-239.
- Son, Youn-Jung et al. 2012.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Retrieval Skill on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in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Adult Nursing*, 24(6): 635-646.